

이 의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27개 업체중 23개의 업체가 의사나 간호원이 없는 상태에서 의무실을 운영하고 있음이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하겠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서비스업체에 27%가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여러 종류의 업체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서비스업체가 전체 서울 시내 산업체의 수에 비하여 극소수이지만 의무실 보유율은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2. 산업체의 종류별로 건강관리 현황을 고찰하고자 하였으나 산업체의 분포가 주로 서비스업체에 몰려 있어 타업체와 비교하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개략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산업체의 종류별로 의무실을 구성하고 있는 보건요원의 분포는 식품업체는 모두 간호원과 의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업종들은 전문보건요원 50%, 무자격 요원 50%의 분포로 구성되어 있는 경향이였다. 즉 대상업체의 50%는 전문 보건요원에 의해서 근로자 건강관리에 임하고 있으며 50%는 무자격 요원에 의해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산업체의 의무실을 찾는 주된 원인으로 산업체 근로자들의 소화불량이 50.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산업체 의무실에서 제공되는 보건관리 내용은 주로 응급처치 및 간호가 가장 많았다.

산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산업체는 48%이었으며 정기적인 건강진단은 100%, 건강 진단 후 추후관리는 89%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3. 보건관리 요원별 업무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관리 요원들이 1,000명 이상의 산업근로자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44.0%로 나타났으며 근로자의 수가 많을수록 보건간호원 및 의사들이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경향이였다.

보건관리 요원들의 그 산업체 근무 연한은 1년에서 5년사이가 가장 많은 69.4%이고 봉급 수준은 간호원의 경우 월 15만원 이상이 72.5%이며 간호보조원은 9만원에서 15만원이 92.9%로 가장 많았다.

보건관리 요원별 의무실에서 가장 많이 제공되는 보건관리 내용은 간호원과 간호보조원의 경우에 “응급처치와 간호”이며 무자격 요원인 경우에, “문제를 발견하여 의뢰하는 업무”이었다.

보건교육의 실시 여부를 보건관리 요원별로 보면 간호원의 경우 61.8%가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그 내용으로 응급처치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간호보조원인 경우는 71.4%가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이 나타났다. 기타 무자격 요원은 보건교육 내용으로 사고예방을 다루고 있었다.

## 산업장 근로자들의 간호 역할 기대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 신 영 희

저자는 효과적인 산업보건간호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간호역할 기대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접근 방안이 모색되어야 사업 성공의 첩경이라 사려되어 Freeman 과 김이 정의한 산업장간호원의 역할 정의와 이러한 건강 전문직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 및 이에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Health Behavior 이론과 역할이론을 토대로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에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일개 방직공장 근로자 169명을 대상으로, 저자에 의해서 고안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산업장 근로자들의 간호역할 기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각 간호역할 영역별 기대정도의 평점척도·분포가 4.76-3.02로 일반적으로 「보통」정도 이상의 간호역할 기대치를 보이고 있었으며, 직접 간호제공자 역할의 평균 기대점수가 4.76으로 가장 높았고, 차위로 상담자(3.92), 관리자(3.84), 촉매자(3.54), 결정자(3.27), 교육자(3.11), 대변자(3.08), 관찰자(3.02) 순위였다.

2. 일반적 특성과 간호역할 기대와의 관계 분석에서 연령, 성별, 근무부서, 월수입 등이 각 영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는 직접간호제공자, 관찰자 영역에서 여자보다 기대가 높았고, 여자는 대변자 영역에서 남자보다 기대가 높았다. 이는 근본적으로 성(性) 역할의 문화적 영향에 의한 것이라 본다.

사무직 근로자가 육체 노동을 하는 생산직 근로자보다 직접간호제공자, 상담자, 교육자 영역에서 모두 기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사무직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보다 질병에 관한 관심이 더 많고 따라서 간호역할 기대도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21-24세군이 촉매자(Potentiator) 역할영역에 가장 기대가 높았고 25세 이상에서는 기대가 낮았으며, 수입이 적을수록 또한 촉매자 역할영역에 유의성 있게 기대가 높았다. 이와같은 결과는 젊은 연령층의 진취적 성향과 낮은 경제집단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이득에 관한 기대 때문이라 사려된다.

그러나 관리자, 결정자 역할영역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한 변수들 중에서 보건지식만이 부분적으로 역할기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건지식이 많을수록 교육자, 결정자 역할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직접간호제공자에는 역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보건지식이 간호역할 기대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됨을 알았다.